

“우리도 함께 뛰다”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 D-9

‘의과대학 설립’ 도민들 염원 안고
총장·학생 등 60여명 희망의 질주

목포대학교

“목포대 20년 숙원사업인 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목포대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이 ‘제48회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대회’에 참가해 ‘의과대학 설립’이라는 염원을 안고 달린다.

“노령화 심각 전남에 의대 꼭 필요”

마라톤 동호회원들 거리 홍보

도민결의대회·100만인 서명운동도

적으로 지난 2009년 7월 출발했다. 올해 장흥 마라톤대회에 이어 2번째로 참가하는 3·1절 마라톤 대회를 통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보여주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

회 회원이다. 회원들은 매주 목요일 저녁 학교 대운동장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또 휴일에는 목포 부주산과 영산강 하구둑을 지나 나뭇도를 돌며 팀워크를 다져오고 있다.

고 총장은 매 대회마다 교직원들과 함께 참여해 기량을 겨루고, 지역사회와의 교류의 장에도 함께 참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목포대 마라톤 동호회는 지난해에 의과대학 유치와 입시홍보 등을 병행함으로써 홍보 전도사의 임무를 담당했으며, 지난해 4월 열린 보성 마라톤대회에서는 단체 2위를 차지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제48회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대회’에 참가하는 목포대학교(총장 고석규) 교직원과 학생들이 ‘의과대학 설립은 전남도의 희망’이라고 쓰인 플래카드를 들고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목포대 제공>

목포대는 지난 20년간 전남 도민의 염원을 담아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지난 2008년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추진위원회를 출범하면서 수차례의 정책건의와 2011년도 국회회람, 2012년 전라남도 의과대학 유치·도민결의대회 및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의과대학 필요성을 전국에 알렸다. 올 1월 현재 26만여명의 지역민 서명도 받았다. 전남의 경우 도서벽지가 많고 농·수산업이 중심인 인구가 가장 높은 곳이다. 전남도 전체 인구의 20.9%가 노인인구로 초고령화에 진입했고, 기초생활 수급자 비율도 8%에 도달한 낙후 지역이다. 무엇보다도 당뇨병, 관절염, 감염성 질환 등 7대 만성 질환자가 많아 1인당 평균 진료비가 전국 최고의 지역이나 16개 광역자치단체중 의과대학이 없는 유일한 곳이다.

목포대 고석규 총장은 “국립목포대 의과대학 설립은 전남도의 희망이다. 반드시 의과대학을 설립해 지역 보건 의료 서비스를 향상시켜야겠다”고 강조했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kwangju.co.kr

윤석민 ‘에이스 본색’

연습경기 선발 30닝 무실점·서재응도 20닝 완벽투

WBC 대표팀, NC에 0-1 패배

야구대표팀의 오른손 에이스 윤석민(27·KIA)이 무실점 호투로 제3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기대감을 높였다.

윤석민은 19일 대만 도류시 도류구장에서 열린 NC 다이노스와의 첫 평가전에서 선발 등판, 30닝 동안 47개를 던져 안타 5개를 내렸지만 삼진 2개를 결투하며 무실점으로 역투했다. 국제대회 13경기에서 5승1세이브에 평균자책점 1.05라는 놀라운 성적을 거둔 윤석민은 3월2일 펼쳐지는 네덜란드와의 WBC 본선 1라운드에서 유력한 선발투수로 기대되고 있다.

1회 1사 2루, 2회 2사 1루의 위기상황을 잘 넘긴 윤석민은 3회에는 연속 3안타를 얻어맞고 무사 만루에 몰렸다. 하지만 윤석민

은 NC의 클린업 트리오인 나성범, 이호준, 모창민을 각각 삼진, 2루수 내야 뜬공, 우익수 뜬공으로 돌려세우며 뛰어난 위기관리 능력을 선보였다.

윤석민의 직구는 최고 146km를 찍었고 줄곧 140km 초반대를 유지했다. 삼진을 노리기보다는 공격적인 피칭으로 맞춰잡기에 주력하는 모습이었다. 아울러 슬라이더와 체인지업을 섞어 던지며 구위를 점점했다.

윤석민의 뒤를 이어 서재응(KIA)이 20닝을 1안타 무실점으로 틀어막았으나 3번째 투수 손승락(넥센)이 1이닝 동안 2안타를 얻어맞고 1점을 내줬다.

타자들은 첫 실전경기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 정근우(SK), 이대호(오릭스), 김현수(두산), 전준우(롯데), 이용규(KIA)가 1안타씩을 기록했을 뿐 이승엽(삼성), 김태균(한화) 등 나머지 타자들은 모두 무안타로 침묵해 결국 0-1로 패했다. /연합뉴스



공격 피칭 19일 대만 도류구장에서 열린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야구 대표팀과 NC 다이노스 연습경기. 대표팀 선발 윤석민이 역투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지애 고보경 청야니

신지애·고보경·청야니 태국서 재격돌

혼다 LPGA 타이랜드 출전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개막전을 우승으로 장식한 신지애(25·미래에셋)가 태국서 무대를 옮겨 2주 연속 정상에 도전한다.

신지애는 21일부터 나흘간 태국 춘부리의 시암 골프장의 파타야 월드코스(파72·6천469야드)에서 열리는 혼다 LPGA 타이랜드에 출전한다.

신지애는 17일 ISPS 혼다 호주여자오픈에서 우승, 새로운 시즌을 힘차게 시작했다. 지난해 9월 킹스밀 챔피언십과 브리티시 여자오픈에서 잇따라 우승하면서 부활을 알린데 이어 올 시즌 개막전에서도 우승트로피를 들어 올리며 세계정상 복귀를 향한 신

호탄을 왔다. 세계랭킹 1위 청야니(대만)와 ‘천재 소녀’ 리디아 고(16·한국이름 고보경) 등이 이번 주에도 신지애와 불꽃튀는 샷 대결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야니는 2011, 2012년 이 대회에서 우승한 ‘터줏대감’이다. 우승을 하지 못한 2010년에도 3위, 2009년 공동 7위에 오르며 등 쭉추는 강한 모습을 보였다.

리디아 고도 ISPS 혼다 뉴질랜드 여자오픈에서 우승하고, 호주 여자오픈에서는 신지애와 마지막 날 챔피언십에서 대결하는 등 만만찮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신지애 외에도 최나연(26·SK텔레콤), 박인비(25), 유소연(23), 양희영(24·KB금융그룹) 등 ‘태국 남자 군단’의 대표주자들이 총출동, 시즌 첫 승 도전에 나선다. /연합뉴스

최경주, 액센츄어 1회전서 로즈와 격돌

우즈·매길로이 세기의 대결 관심

총상금 875만달러가 걸린 월드 골프챔피언십(WGC) 액센츄어 매치플레이 챔피언십이 20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마라나 리치 칼트 골프장(파72·7791야드)에서 개막한다.

매치플레이 방식으로 열리는 액센츄어 챔피언십은 세계 랭킹 1위부터 64위까지 선수들이 출전해 1위와 64위, 2위와 63위 등의 방식으로 1회전을 치러 이후 토너먼트로 우

승자를 가린다. 우승 상금은 140만 달러(약 15억원)다.

세계 랭킹 1위 로리 매길로이(북아일랜드)가 전체 1번시드를 받은 가운데 타이거 우즈(미국), 루크 도널드(잉글랜드), 루이 웨스트호이젠(남아공)이 나란히 시드를 배정받았다. 지난해 이 대회에는 한국(계) 선수가 5명이 출전했지만 올해는 최경주(43·SK텔레콤) 한 명만 나간다. 2008년 8월까지 올랐던 최경주는 1회전에서 세계 랭킹 6위 저스틴 로즈(잉글랜드)와 맞붙는다. /연합뉴스

순천시장기 유소년야구대회

25일까지 전국 17개 팀 참가

전국 야구 꿈나무들이 순천에서 실력을 겨룬다. 순천시는 ‘제9회 순천시장기 유소년 야구대회’를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순천에서 연다.

이번 유소년 야구대회에는 전국 10개 광역시·도 초등학교 17개 팀 선수와 가족 등 6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강남초등학교 등 15개 원정팀과 순천 북초등학교 및 남초등학교 등 관내 2개 팀이 출전, 조별리그전과 조별 상위2팀 토너먼트방식으로 경기가 진행된다.

경기는 순천 강남여고와 순천 북초등학교, 순천 남초등학교 등 3개소에서 나눠 치러진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KIA 타이거즈 어린이 회원 모집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20일부터 선착순으로 2013시즌 어린이 회원 3000명을 모집한다.

어린이 회원은 KIA 홈페이지(www.kiatigers.co.kr) 팝업창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비는 7만 원이다. 가입 기념품으로 글러브와 알루미늄 배트, 모자, 가방, 팬북, 안전볼, 회원증 등을 받는다.

어린이 회원은 홈 경기시 외야석에 무료입장할 수 있으며, 회원증을 제시하면 전국 프로야구장의 일반석 또는 자유석에 무료로 들어갈 수 있다. 단, 매진된 정규시즌 경기와 포스트시즌, 올스타전에는 무료입장할 수 없다.

어린이 회원은 KIA의 어린이 대상 이벤트에도 우선해 참여할 수 있다. 문의(070-7686-8043) /김여울기자 wool@

광주<->목포항 셔틀버스 매일 운항
매일 광주에서 출발하는 셔틀버스로 목포항까지 편안하게~
국내최대 씨스타크루즈호 타고 제주까지 안전하게~ 3만원으로 떠나세요.
셔틀버스+씨스타크루즈호 = 30,000원
광주출발 06:40 광천터미널 맞은편 목포출발 21:30 여객터미널 주차장
*1인 편도요금이며 추가비용은 없습니다.
씨월드 고속해리(주) 우수대리점. 제주배대점 www.jejube.com 1644-2261

광주출도착 제주도 2박3일 매일출발
[목포, 장흥, 완도, 녹동출발 크루즈 및 쾌속선 왕복] 155,000원
1일자 도두봉 트래킹, 수목원테마파크 - 트릭아트, 얼음박물관, 5D영상관
2일자 오설록, 코끼리랜드, 카멜리아힐 동백정원, 산방산유람선(현지직불), 올레길7코스, 새연교+새섬, 쇠소깍
3일자 삼나무숲길, 몽골리안마상소 or 매직소 (현지직불), 에코랜드 or 선녀와나무꾼 조랑말 승마체험, 제주허브동산, 해너촌
포함사항: 광주[목포,장흥,완도,녹동]왕복 셔틀버스(45석 선착순), 왕복선박료, TAX, 차량, 일반 호텔(5~6인실), 일정표내 입장료, 식사(중식2회,조식2회)
불포함사항: 가이드팀, 개인비용, 현지직불관광, 자유석식, [완도,녹동]터미널-[완도,녹동]항 이동
금, 토 출발시 20,000원 추가 / 2인실 이용시 30,000원 추가 3월6일 ~ 7월19일까지 적용됩니다.